

## 16대 대통령선거 조사자료와 세대구분: 연령효과 대 코호트효과

이명진\* · 김경화\*\*

### I. 머리말

최근 정치분야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를 둘러싸고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조사는 단순히 선거결과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한 이미지나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선거조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양승목, 1997).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그 영향의 단적인 예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맞설 단일후보를 뽑기 위하여,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정치권의 각종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론조사로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매우 희귀한 경험을 하였다. '단일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국 후보 선호도뿐만 아니라, 결국 노무현 후보가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sup>1)</sup>

그런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각되는 쟁점 중 하나는 단순히 대통령 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은 후보 지지율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많은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계층·계급별, 성별, 연령별로 지지율 양상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sup>2)</sup> 특히 지난

\*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 국민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1)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재협상 타결 후 TV 토론회와 50시간의 피말리는 단일화 레이스 끝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노 후보는 24일 실시된 2군데 여론조사 중 '리서치 앤드 리서치'사의 경쟁력 조사에서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4.6% 차로 제쳤으며, 월드리서치 조사에서는 비록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유효화 조건인 31.1%에 미치지 못한 28.7%로 무효가 되긴 했지만 38.8%를 기록, 37.0%를 얻은 정 후보를 1.8% 간발의 차로 앞서 사실상 두 군데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다"(김현재, 2002).

2) 사실상 선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대선결과에 각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16대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부록 1>, <부록 2> 참고).

그러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지율 변화 같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많지 않다. 둘째, '세대'를 단순히 신체적인 연령의 묶음으로 한다는 점이다. 많은 여론조사들은 연령을 단순하게 20대, 30대, 40대, 50대 등으로 구분하여 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 세대별로 의미 있는 분석을 실행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세대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몇몇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홍영립, 2002a; 조중빈, 2003). 홍영립(2002a)은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8번에 걸친 조선일보·한국갤럽, MBC·한국갤럽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40대가 각 후보 지지율에 대한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40대에서 지지율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대선의 방향에 40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조중빈(2003)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구분을 도입했다. 그는 유권자를 한국전쟁, 유신, 민주화운동 등 주요 정치적사건을 중심으로 여섯 세대로 나누어, 각 세대의 대통령후보 지지율과 정치의식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16대 대통령선거와 세대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각 세대별로 지지성향의 추이를 살펴본다. 만약 정치적 부문에서 세대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있게 나타났는가? 아니면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선거에서 세대는 과연 어떠한 유형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단순한 연령대(연령효과)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정치적/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코호트(코호트 효과)를 의미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정치부문에서 세대갈등의 원인을 다루거나, 앞으로의 선거에서 세대문제를 연구할 때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6대 대통령 선거자료에서 나타난 각 세대별로 나타난 대통령후보 지지율과 정치/사회부문에 대한 의견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는다. 특히 일반적인 세대구분인 40대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40대는 30대의 '개성'과 50대 이상의 '권위' 사이에 끼여 있는 세대라고 한다.<sup>3)</sup> 이러한 40대의 특성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일관성이 있는 50대이상과 30대 미만에 비해 변화가 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0대에 대한 연구는 40대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힘들다. 대신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구조사와 선거후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3) 즉 "지금의 40대가 주로 베이비붐 시대(55~63년)에 태어나 청년시절 유신, 신군부 쿠데타, 민주화 운동 등을 겪었으나 이제는 개인적 삶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는 세대로, 변화와 안정 두 가지에 모두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다"(홍영립, 2002b)는 것이다. 또한 40세는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는 연령 구분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한국사회학회, 1990; 조혜선, 1990).

## II. 선거와 세대

### 1. 사회과학과 세대연구

지난 한 세기동안 한국은 다른 사회에 비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는 사회일수록 세대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왜냐하면 변동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세대간의 갈등의 폭 또한 커질 잠재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학 분야에서 거의 최초로 세대논의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칼 만하임(Karl Mannheim, 1993(1928))은 세대현상을 사회문화적 변동과 관련하여 이해했다. 만하임은 세대현상을 생물학적 요소만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단순한 나이 들과 연령과 같은 명목적 범주에 따라 세대현상을 분석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측면에서 세대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만하임의 세대 논의는 결국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세대'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사회운동 외 일반적인 세대 연구를 위해서는 그 범주가 협소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하임의 논의는 좀더 코호트적 시각에서 사회변동 또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대'에 관한 분석에서는 세대간의 차이가 연령인지 코호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sup>5)</sup>. 즉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그것이다. 대체로 연령효과관 사회적·생물학적 성숙과정에 따른 차이, 코호트 효과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에 의해 빚어진 차이를 말한다(박재홍, 2001).<sup>6)</sup>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식 면에서 보수적인

4) 생물학적 기반으로 세대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들을 설명하지 못한다(Mannheim, 1993)." 만하임은 세대를 동시출생 집단에 역사적 의식이라는 조건을 더해, 구성원들이 동일한 현상을 모두 경험하고 이에 "충화된 의식"을 공유한 "공통적 위치"라는 의미로 파악한다. 그리고 공유된 세대위치는 그 세대에 내재한 고유한 "엔탈러기"를 창출하고 실현함으로써, 그 전·후세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적·문화적 변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5) 이는 세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세대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쾰저(Kertzer, 1983)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세대개념을 크게 네 가지 구분한다. 첫째, '가계 계승의 원리로서의 세대'로서,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같이 항렬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둘째, 세대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출생 코호트' 의미로 사용하는 '코호트로서의 세대'이다. 출생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은 생애 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식과 행위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하임의 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생애 주기로서의 세대'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동일한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서의 세대'인데, 이 개념에서는 코호트 개념과 비슷하게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 의식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생애주기 단계로서의 세대와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는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일정부분 맥락이 비슷하다.

성향을 띠는 현상은 연령효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떤 한 세대가 나이가 들어도 그 세대만의 고유한 특성이 변하지 않을 때 코호트효과에 의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코호트적 시각에 입각한 '386세대'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코호트효과 입장에서 세대문제를 다룬 만하임의 뒤를 이어, 1960년대 학생들의 체제 저항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세대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up>7)</sup> 그러나 서구에 비해 사회·역사적 변동을 급격하게 겪은 한국의 학계에서는 세대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학회(1990)의 세대연구와 조혜선(1990)의 계량적 연구를 선두로 하여 세대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점차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만하임의 의미에서 또는 서구의 세대연구처럼 코호트에 입각해 세대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한 연령별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sup>8)</sup>. 이후 최근에는 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관계나 차이, 세대 갈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코호트적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각 세대간의 심리적인 갈등구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대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이 '386세대'의 가치관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와 한국사회학회(2002)가 '왜 다시 세대인가?'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한국 학계의 세대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세대문제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40대의 대선 지지율 변화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실 정치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6대 대선을 둘러싸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 6) 세대연구에서 연령(age), 코호트(cohort), 기간(period)의 분리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중요하다.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가 존재한다는 말은 비교되는 시점에서 특정 연령층의 행동이나 태도들에서 관찰되는 변천들이 성장 및 노화라는 나이 먹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age effect)이 아니라, 코호트에 따른 성장 패턴의 차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Riley, 1988). 한편 기간효과(period effect)는 세대간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가 특정한 연구 관찰시점, 즉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7) 한 예로 로퍼와 벵슨(Laufer and Bengtson, 197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조직유형의 변화가 대안적 가치관·생활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중간계급' 출신 청년들이 대안 모색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60년대 저항문화의 흐름을(만하임의) 세대단위와 동일시하면서, 급진주의, 방랑주의, 공동체주의, 신앙부흥주의라는 네 유형의 세대단위를 제시한다. 이들은 또한 이 네 가지 유형이 60년대 서구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박재홍, 2001).
- 8) 혹은 구체적인 코호트 구분이 모호하다

결과들이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단순히 연령별로 묶거나, 구체적인 세대별 심층분석이 부족했다. 물론 몇몇 연구들은 선거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홍영립(2002a)은 40대의 각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0대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sup>9)</sup>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 대선 의 방향에 40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결과였다.

<그림 1>에 나타난 40대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2월27일(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는 이 후보(53.7%)가 노 후보(29.8%)를 23.9% 앞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3월 16일 조사(MBC·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후보간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곧 4월 2일(MBC·한국갤럽 조사)에는 2월 27일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노 후보(59.5%)가 이 후보(26.7%)를 32.8%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 40일 만인 5월12일 조사(MBC·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다시 이 후보(41.2%)가 노 후보(38.9%)를 2.3% 앞서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약 2달 반 동안 40대의 노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번에 걸쳐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의 한계점은 40대를 심층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단순히 연령별 지지율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 정치에서 40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40대의 지지율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해 봤을 때, 40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단순한 연령별 묶음이 아니라, 코호트에 입각한 지지율 변화 분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40대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했을 경우,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조중빈(2003)의 16대 대통령선거와 정치세대 분석에는 좀더 구체적인 세대구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전쟁세대(61세 이상), 전후세대(49-60세), 유신체제세대(41-48세), 민주화·노동운동세대(33-40세), 탈냉전세대(24-32세), 탈정치화세대(20-23세) 등 여섯 세대를 제시한다. 그는 각 세대별 특성과 세대별로 대북의식, 정치의식, 경제의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그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대갈등으로 부풀려진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령별로 봤을 때 후보자별 득표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20대와 30대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가를 보기 전에 상당수가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과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인물에 더 호감을 갖는 젊은층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동원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젊

9) 같은 기간 20대의 노 후보 지지율은 51%에서 51.8%로 오히려 7.3% 올랐고, 30대도 55.8%에서 54.5%로 비슷한 추세였다. 50대 이상에서는 이 후보 지지가 43.1%에서 46.1%로 3% 정도 상승하면서 노 후보와 20% 가량의 격차를 유지했다. 즉 20~30대 '노 후보 우세', 50대 이상 '이 후보 우세'가 견고한 가운데 40대의 표심 변화로 인해 양자대결 지지율이 큰 폭으로 진동한 셈이다(홍영립, 2002a).

은층의 특성을 노려 세대갈등을 더욱더 부추긴 점이 있다는 것이다.

### 3. 선거와 코호트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부분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만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세대를 구분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나누어진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지지율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홍영림(2002a)은 좀 더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하였다. 그는 40대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시간별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핵심은 40대의 지지율이 노 후보의 김영삼 전대통령 방문 이후 급속도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조중빈(2003)은 이러한 세대의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기존의 선거와 관련된 세대구분이 주로 생리적 세대라고 보고 있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개인의 정치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그는 19세와 28세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경험을 하였는가를 세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한국전쟁세대(61세 이상), 전후세대(49-60세), 유신체제세대(41-48세), 민주화/노동운동세대(33-40세), 탈냉전세대(24-32세) 모두 여섯 세대를 제시하였다. <표 1>은 이러한 세대구분을 근거로 40대와 인접세대를 구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적어도 40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40대라는 연령구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40대 범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1953년에 출생한 49세와 1962년에 출생한 40세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조중빈(2003)의 구분에 의하면 이들은 유신체제 때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유신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보내면서 정치적 억압을 느꼈던 세대이다. 전후세대와 이 세대가 다른 점은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다. 1954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약 400달러에 불과했지만, 1961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600달러에 달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지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도 청년기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신체제 세대는 정치적인 경험과 동시에 경제적인 경험을 함께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유신체제 세대가 적어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사한 정치행위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하나의 세대(코호트)를 형성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한 공헌을 한다(Glenn, 1977; Ryder, 1994).

우리는 40대 혹은 유신체제 세대에 대한 세대구분을 시도하였다. 기본적인 가정은 코호트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인구적인 측면도 중요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부문의 영향은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경제, 사회, 인구구성이 주는 영향만큼 상대적인 변화의 정도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55년생부터 산아(産兒) 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61년생까지 출생한 베이붐세대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들 베이붐세대는 그들만의 생활사를 경험하고 독특한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문에서는 고교평준화 같은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사회전반에 입시 지옥과 과외문제를 불러일으켰다(주간조선, 2001).<sup>10)</sup>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는 40대를 보다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다. 2002년 현재 이들의 만 나이는 49세부터 44세까지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유신초반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을 공유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 1,000불미만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공유한다. 이들은 베이붐세대의 초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각종 한국 교육제도가 바뀌어 갔다. 1974년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되었고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시행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유신체제 후반 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1인당국민총소득 1,000불 이후 시대에 진입하였다. 교육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였다. 대학진학자들인 경우 대학 졸업정원제라는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은 흔히 거론되는 386세대와 유사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세대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 III. 분석

#### 1. 자료와 방법론

이 연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일차자료로는 조선일보와 갤럽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대통령 선거자료들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조사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가 사용되었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홍영림, 2002a). 조선

10)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2차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65년에 태어난 세대로 본다. 그 수는 7,800만 명 정도로 이른다. 이들은 교육제도, 문화/예술, 학생운동, 민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일보와 갤럽 자료들은 2월 27일, 3월 23일, 4월 19일 등 중요한 정치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조사들은 전국 성인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각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조사들에서는 정치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속한 반응을 알기위해 전화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몇몇 조사들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경제적인 이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인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는 대통령선거 직후인 2002년 12월 20일-27일까지 8일간 이루어졌다. 다단계 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표본이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1,500 명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이다. 이 조사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 선거 분위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활동, 유권자들의 의식 및 태도 등 한국선거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에는 선거당시 현안사항, 여성분야 현안(호주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등)문제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가 추가되어 있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위에서 언급한 일차자료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개의 이차자료도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된 대통령선거자료의 결과들이다. 주요자료로는 문화방송/한국갤럽 조사,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행한 기관과 목적이 다른 만큼 조사방법과 조사 시기 등이 다양하다. 물론 설문문항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차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40대들의 대통령선거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들을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후보군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반기에 들어서서야 명확히 후보군이 확정되었다. 사실 대통령선거 바로 직전까지 몇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많은 변동이 있었다. 따라서 2002년 초반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누구를 후보군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지지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일단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양자대결을 상정할 때 나타난 지지율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 중 누구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살펴볼 것인가이다. 사실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후보를 택해도 지지율의 유형이 다르지 않다. 적어도 연령과 관련해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과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가 40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만큼, 상대적으로 보다 극적인 지지율 변화를 보인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는 코호트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정치적인 의식을 어떠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인가이다. 40대가 하나의 코호트를 이룬다면, 이들은 어떠한 사회/정치적인 의식을 공유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40대가 하나의 독립적인 코호트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떠한 코호트와 유사한 사회/정치적인 의식을 보이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민감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한미동맹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각 코호트별 의견을 비교하고자 한다.

## 2.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

이제 노무현 후보에 대한 각각의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자. 사용된 자료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2002년 3월 23일, 4월 19일, 5월 22일에 각각 조사한 대통령 선거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약 두 달간에 걸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홍영림(2002a)과 조중빈(2003)이 각각 제시한 전체 40대 유권자들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화 분석과 정치세대별 지지율 변화 분석이다. <그림 2>와 <표 3>이 이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인구적 측면에서의 각각의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 분석이다. 40대는 2002년 현재 만 나이 40세-43세와 44-49세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40대가 독립적인 코호트를 이루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코호트와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40대를 전후로 인접한 38세-39세, 50-51세의 지지율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림 3>과 <표 4>가 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와 <표 3>에는 전체 40대 유권자들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화와 정치세대별 지지율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전체 40대 유권자들은 3월 23일에는 58.9%, 4월 19일에는 58.2%로 지지율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5월 22일에는 45.0%로 전반적으로 약 14.0%정도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중빈(2003)에 따른 정치세대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41세(민주화·노동운동세대)는 나머지 두 세대보다 가장 높은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다. 3월 23일에는 63.4%였던 지지율이 4월 19일에는 65.9%로 2.5% 더 높아졌지만, 5월 22일에는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11.7%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41세-48세(유신체제세대)는 전체 40대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3월 23일에는 59.0%였다가 4월 19일에는 56.9%로 약간 낮아지며, 5월 22일에는 43.8%로 4월 19일보다 약 13.0%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49세(전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3일에는 50.0%, 4월 19일에는 45.5%, 5월 22일에는 41.7%로 다른 세대에 비해 큰 낙차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봤을 때, 각 정치세대별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두 달 사이에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 낮은 연령대의 세대일수록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등 통념과는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림 3>과 <표 4>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각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40대를 각각의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40세-43세의 경우 3월 23일에는 56.4%였던 지지율이 4월 19일에는 64.0%로 7.6% 높아졌다가 5월 22일에는 다시 55.6%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약간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44세-49세는 전체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3월 23일에는 61.2%, 4월 19일에는 52.1%, 5월 22일에는 36.4%로 두 달의 처음과 끝을 봤을 때 24.8%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40대와 인접한 코호트는 어떠한가? 38세-39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두 달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18.2%의 차이가 난다. 50세-51세의 경우에는 3월 23일에는 65.5%였던 지지율이 5월 22일에는 28.0%로 두 달 사이에 무려 37.5%나 낮아졌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 같은 40-43세의 경우 초반에는 44세-49세나 50세-51세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4월 19일에는 64.0%로 다른 코호트와는 반대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약 한달 뒤인 5월 22일에는 38세-39세와 비슷하게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또한 44세-49세의 경우를 보면, 3월 23일에는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할만한 50세-51세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약 한달 뒤에는 52.1%로 9.1%로 높아졌다가 5월 22일에는 36.4%로 15.7%나 낮아져 50세-51세와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홍영림(2002a)이나 조중빈(2003)의 분석에서처럼 전체 40대를 하나의 세대로 볼 때와는 다른 지지율 유형을 나타낸다. 결국에는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낮다. 그러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다르다. 40세-43세 코호트는 38세-39세와 유사하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에 44세-49세 코호트는 50세-51세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보인다.

### 3. 코호트별 정치/사회 의식

지지율 차이가 정치/사회 의식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필요가 있다. <표 5>는 코호트별 정치/사회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정치/사회 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에 관해 1)적극찬성, 2)찬성, 3)반대, 4)절대반대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따라서 표에서 제시된 값은 각각 문항에 대한 각 코호트별 평균점수이다. 참고로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가 제시되었다.

정치/사회 의식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대체로 연령이 높은 50-51세가 보다 보수적이다. 반면에 연령이 낮은 38-39세는 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44-49세 코호트는 이러한 전반적인 유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지원문

제를 살펴보면, 44-49세 코호트는 40-43세 코호트와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 그런데 경제/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44-49세 코호트는 40-43세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44-49세 코호트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관여를 찬성하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기여입학과 환경문제에서도 나타난다. 44-49세 코호트는 40-43세보다 대학 기여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44-49세 코호트가 연령에 따라 보수적이다라는 일반적인 유형을 따르는 부문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여성문제가 이러한 부문에 속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40-43세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2.34이다. 반면에 44-49세의 평균점수는 2.44이고 50-51세 평균점수는 2.58이다. 여성 정치참여와 경제활동참여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44-49세 코호트는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평균점수가 2.10인 반면에 40-43세와 50-51세는 각각 평균점수가 2.02와 2.19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장 적절한 역할이 가정주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44-49세 코호트의 평균값은 2.20이고 40-43세는 2.06이다.

이렇게 적어도 44-49세 코호트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문제나 복지문제 같은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서는 40-43세 코호트보다 보다 진보적이고, 38-39세와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가보안법이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유사한 유형을 보인다. 38-39세 코호트나 40-43세 코호트보다는 50-51세 코호트에 좀 더 가까운 의견을 보이고 있다.

#### IV. 토의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사회 부문에서 세대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세대문제를 코호트효과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대문제를 다룰 때에는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언급된다. 이러한 구분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조사결과는 연령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지지율이나 정치/사회적의식의 차이를 다룬다. 반면에 코호트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치/사회적의식 혹은 행동 차이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실시된 각종 선거조사에서 나타난 세대차이를 코호트별로 다루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40대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많은 주목을 받았다(홍영림,

2002a). 아울러 이들은 전후 한국사회에서 몇 가지 독특한 사회적 경험을 한 세대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정치/경제/사회부문에 급변하는 각종 사회변동을 겪은 세대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40대가 하나의 코호트로서 동질적인 정치/사회의식이나 행동을 공유하고 있는가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40대를 하나의 동질적인 정치세대로서 다루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40대를 정치/사회적인 경험을 근거로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다. 2002년 현재 만 나이로 49세부터 44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붐 전반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각종 교육제도가 변경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범주는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고교평준화가 전국적으로 정착되고,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인 세대들이다.

이러한 코호트구별을 기반으로 40대의 정치/사회의식과 행동을 볼 때, 40대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때와는 차이를 난다. 40-43세 코호트 경우는 인접한 연령대인 38-39세와 유사한 지지율 변화를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지지율도 높고, 변동도 없다. 반면에 44-49세 코호트 경우는 초반에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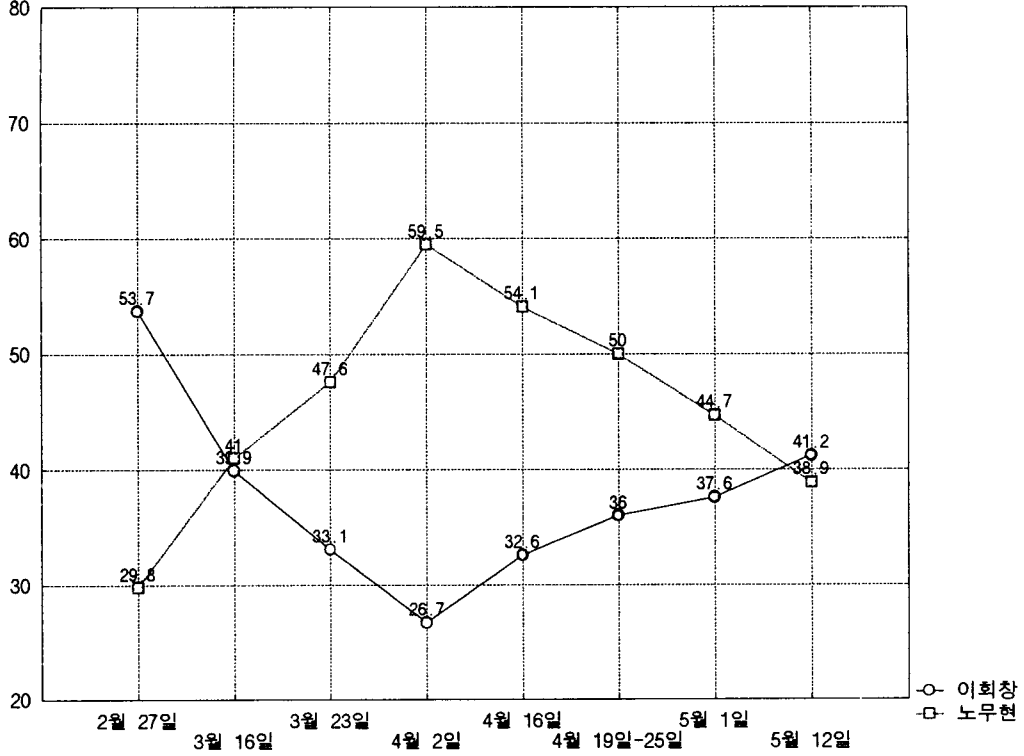
정치/사회의식에서도 두 코호트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44-49세 코호트 경우는 경제/교육/환경문제에 관해서는 40-44세 코호트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 더 보수적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국가보안법과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40-44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세대문제를 다룰 때, 연령이라는 기준에서 접근할 것인가 혹은 코호트라는 기준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코호트를 이용하여 세대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나누는 기준이 때로는 애매하기도 하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변하기 쉽다. 그러나 세대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변화'를 사회과학적인 어떤 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기에 기존의 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순간 맞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서 그 틀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틀이 있다면, 그러한 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대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접근도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가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V.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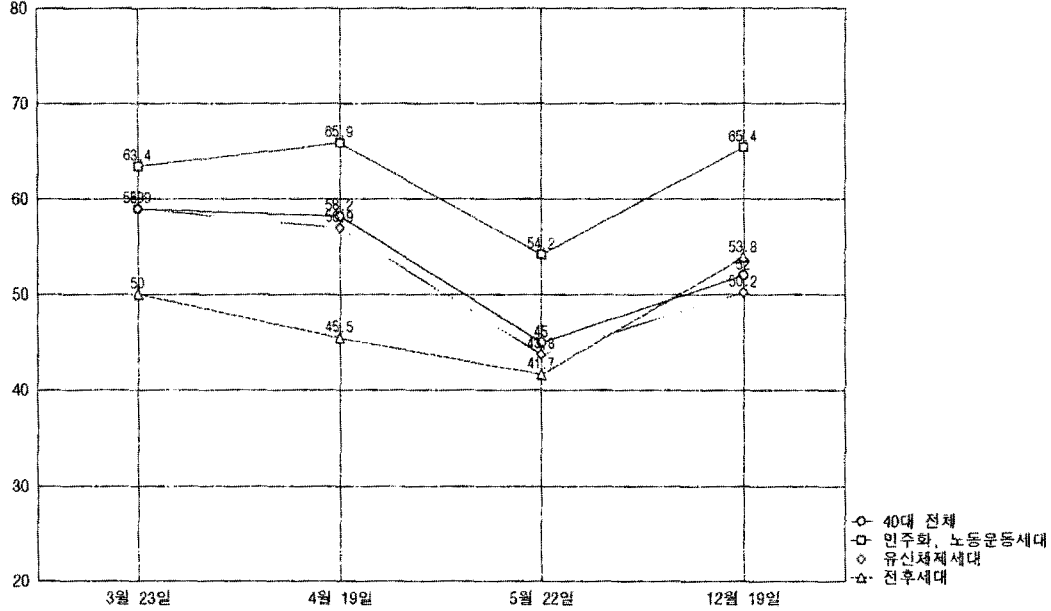
- 김현재. 2002. “피말린 접전 盧승리 결말.” 조선일보 11월 25일.
- 미디어리서치. 2002. “16대 대통령선거 예측조사 결과보고서.”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권: 47-78.
- 양승목. 1997. “여론조사와 제3자 효과.” 『언론과 사회』 18집: 6-28.
- 홍영림. 2002a. “[40대] 요동치는 그들의 표심(票心).” 조선일보 5월 20일.
- \_\_\_\_\_. 2002b. “[40대는?] 변화-안정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는 세대.” 조선일보 5월 20일.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세대.” 『2003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pp. 71-93.
- 조혜선. 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간조선. 2001. “[40대가 主표적] ‘실업(失業) 태풍’이 몰려온다.” 9월 13일.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조사연구.”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_\_\_\_\_. 2002. “왜 다시 세대인가?”. 『한국사회학회 추계 특별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200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자료집』.
- Glenn, Norval D. 1977. *Cohort Analysis*. University Papers Series Number 07-005.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 9: 125-149.
- Mannheim, Karl. 1993(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by Wolff, Kurt H. eds, *From Karl Mannheim*.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Transaction Publishers: 351-402.
- Riley M. W., Anne Forner, Joan Waning. 1988. “Sociology of age”. *Hand Book f Sociology*. in Smelser, N. J. eds., Sage Publications.
- Ryder, Norman. 1992. “Cohort Analysis.” in Edgar F. Bogatta and Marie L. Borgatta.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Macmillan.

<그림 1> 40대의 이회창, 노무현 후보 지지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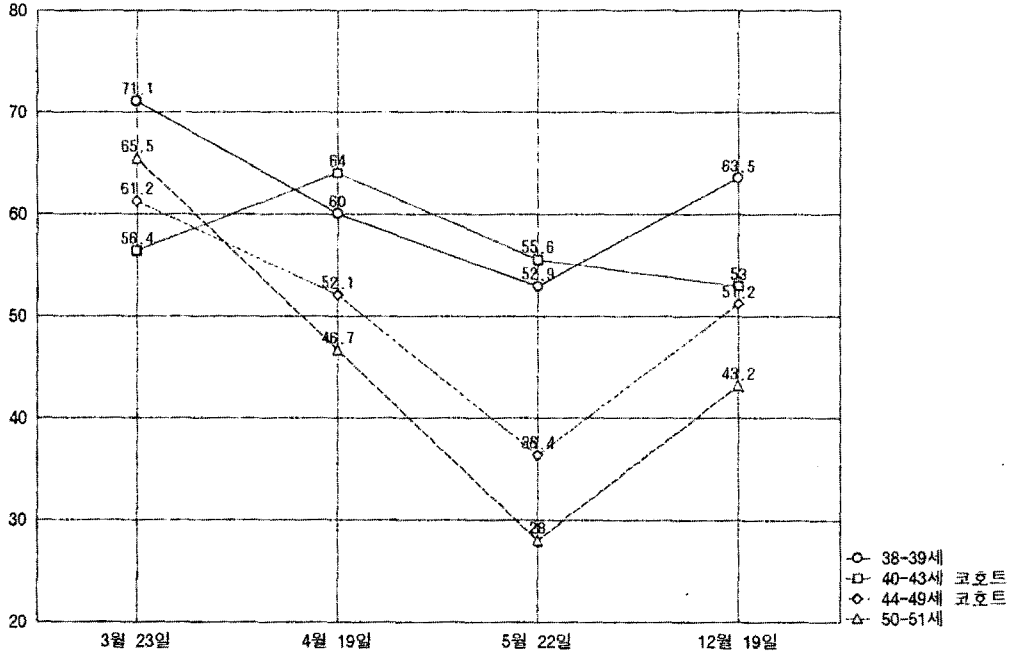


자료: 홍영림(2002a).

<그림 2>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전체 40대, 정치세대별 지지율 변화(%)



<그림 3> 노무현 후보에 대한 각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



<표 1> 정치세대구분

출생 년도	2002년 연령(만)	고등학교졸업연도	주요 정치적 사건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	세대구분(조중빈)
1951	51	1970		249	전후세대
1952	50	1971		286	
1953	49	1972	유신	316	
1954	48	1973		394	유신체제세대
1955	47	1974		540	
1956	46	1975		592	
1957	45	1976		799	
1958	44	1977		1009	
1959	43	1978		1399	
1960	42	1979	10.26 12.12	1636	
1961	41	1980	5.18	1598	
1962	40	1981		1749	민주화 노동운동세대
1963	39	1982		1847	
1964	38	1983		2020	

출처: 조중빈(2003).



<표 2> 정치/사회 세대구분

출생 년도	2002년 연령(만)	고등학교 졸업년도	주요 정치 적 사건	1인당 국민 총소득(달러)	교육제도 변화	인구수*	세대구분
1951	51	1970		249		457,703	
1952	50	1971		286		599,908	
1953	49	1972	유신	316		528,790	
1954	48	1973		394		627,309	
1955	47	1974		540		738,313	
1956	46	1975		592		706,532	44-49세 코호트
1957	45	1976		799		746,868	
1958	44	1977		1009	고교평준화 (서울, 부산)	810,303	
1959	43	1978		1399	고교평준화 (대구, 인천)	861,060	40-44세 코호트
1960	42	1979	10.26 12.12	1636		871,573	
1961	41	1980	5.18	1598		865,637	
1962	40	1981		1749	대학출업정원제	857,272	
1963	39	1982		1847	고교평준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868,293	
1964	38	1983		2020	고교평준화 (창원)	797,307	

\* 2000년 총인구조주택조사

<표 3>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전체 40대, 정치세대별 지지율 변화

	3월 23일	4월 19일	5월 22일	12월 19일
40대 전체	58.9	58.2	45.0	52.0
민주화/노동운동세대 (40세)	63.4	65.9	54.2	65.4
유신체제세대 (41-48세)	59.0	56.9	43.8	50.2
전후세대 (49세)	50.0	45.5	41.7	53.8

<표 4> 노무현 후보에 대한 각 코호트별 지지율 변화

	3월 23일	4월 19일	5월 22일	12월 19일
38-39세	71.1	60.0	52.9	63.5
40-43세 코호트	56.4	64.0	55.6	53.0
44-49세 코호트	61.2	52.1	36.4	51.2
50-51세	65.5	46.7	28.0	43.2

<표 5> 각 코호트별 정치/사회의식 차이(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38-39세	40-43세	44-49세	50-51세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2.32 (.93)	2.55 (.86)	2.50 (.97)	2.63 (.92)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59 (.88)	2.37 (.92)	2.49 (.84)	2.42 (.94)
미국과의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1.67 (.76)	1.72 (.91)	1.72 (.88)	1.78 (1.10)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2.22 (.89)	2.34 (1.03)	2.20 (1.01)	2.18 (1.0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23 (.86)	2.34 (.85)	2.44 (.93)	2.58 (.9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2.11 (.86)	2.02 (.85)	2.10 (.93)	2.19 (.91)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1.93 (.73)	1.76 (.76)	1.86 (.78)	1.92 (.89)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	3.09 (1.00)	2.94 (1.03)	2.80 (1.04)	2.75 (1.14)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	2.90 (1.00)	2.85 (.96)	2.93 (1.00)	3.22 (.95)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다.	1.93 (.80)	1.86 (.82)	1.82 (.78)	1.67 (.80)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2).

<부록 1> 미디어리서치: 각 대통령후보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	김길수
20대	전화조사 1차	29.5	63.2	0.0	7.2	0.1	0.0
	전화조사 2차	22.9	70.1	0.5	5.6	0.7	0.2
	전화조사 3차	29.4	60.6	0.0	9.6	0.1	0.3
	출구조사	31.7	62.1	0.1	5.8	0.1	0.2
30대	전화조사 1차	40.7	57.8	0.1	1.2	0.2	0.0
	전화조사 2차	34.6	57.1	0.5	7.3	0.0	0.5
	전화조사 3차	35.2	57.6	0.4	6.7	0.1	0.0
	출구조사	33.9	59.3	0.2	6.4	0.1	0.1
40대	전화조사 1차	48.2	49.5	0.2	2.0	0.0	0.1
	전화조사 2차	45.0	53.1	0.0	1.6	0.0	0.3
	전화조사 3차	48.9	47.2	0.2	3.8	0.0	0.0
	출구조사	48.7	47.4	0.2	3.5	0.1	0.1
50세 이상	전화조사 1차	57.4	41.4	0.2	0.9	0.0	0.1
	전화조사 2차	66.9	30.6	0.3	1.5	0.0	0.7
	전화조사 3차	61.8	36.7	0.1	1.5	0.0	0.0
	출구조사	58.3	39.8	0.3	1.5	0.0	0.1

출처: 미디어리서치(2002).

- 주) 1. 전화조사 1차: 대상-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 조사기간-11월 29일  
 전화조사 2차: 대상-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 조사기간-12월12일  
 전화조사 3차: 대상-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0명, 조사기간-12월17일-12월18일  
 2. 출구조사: 대상-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45,477명, 조사기간-2002년 대선 투표 당일 06:00-18:00까지

<부록 2>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각 대통령후보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20대	24.6	67.6	0.0	7.2	0.0
30대	32.6	61.1	0.0	6.0	0.0
40대	44.8	48.5	0.3	4.7	0.0
50세 이상	48.5	48.5	0.0	1.8	0.3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2).

주)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남녀 유권자 1,500명, 조사기간: 2002년 12월 20일-27일